
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

2022. 7. 21.

I. 문화정책 방향

1. 배경

□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의 도약

- 오늘날 일류 국가는 부국강병(富國強兵),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완성되지 않음. '문화'가 일류 선진국가의 완성 조건이자 자격
- 힘으로 압도하는 '강국'보다는, 문화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스며든다는 의미의 문화 '매력국가'로 표현

□ 자유의 가치로 K-컬처 글로벌 지평 확대

- 살아 숨쉬는 청와대는 '국민이 주인인 나라'의 상징
- K-컬처, K-콘텐츠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
- 예술인이 창의력과 기량, 숙고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

- 자유 시민의 선결 조건은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
- 문화·체육·관광으로 활력을 높이고, 함께 번영하는 지역균형시대

2. 주요 추진 방향

비전

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추진
방향

- ① (자유) 자유를 기반으로, 독창성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
- ② (공정)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림
- ③ (번영) 문화를 통해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리더국가 역할 확대

핵심
추진
과제

- ① (1단계) 국민 품으로 → (2단계)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겠습니다.
- ② 우리 경제의 도약, K-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.
- ③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- ④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.
- ⑤ 지역균형시대, 문화가 열겠습니다.

II. 핵심 추진과제

① (1단계) **국민 품으로** → (2단계) **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겠습니다.**

□ 접근

- 역사적 결단인 개방된 청와대의 **문화·예술적 면모 확립**
 - 새정부의 핵심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징 자산이자 실질 자산
 - '국민 품속 청와대'의 상징성을 **문화번영**으로 꽃 피우는 **최고·최적의 콘텐츠 보유**
- 청와대 공간의 다양성, 품격과 매력의 **정교한 확장**
 - 대통령 역사공간, 유적지에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
 - 대통령 업적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 기억의 압도적 축적

□ 청와대 구성요소의 고품격 활용

- (콘텐츠) **문화예술(소장 미술품) + 대통령 역사(본관+구 본관 터) + 수목원(주목, 반송 등 5만여 그루와 정원) + 옛 문화재(침류각, 오운정 등)**
- (건축물) **본관 + 관저 + 영빈관 + 춘추관 + 상춘재 등**



본관 및 대정원



관저



영빈관



춘추관

- (야외공간) **대정원 + 관저 정원 + 녹지원 + 산책로 등**
- (브랜드화 방향) **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브랜드화**
 - 건축물과 콘텐츠의 세련된 조합
 - 원형 보존과 문화예술의 어울림(예: 베르사유 궁전 원형속 미술품 전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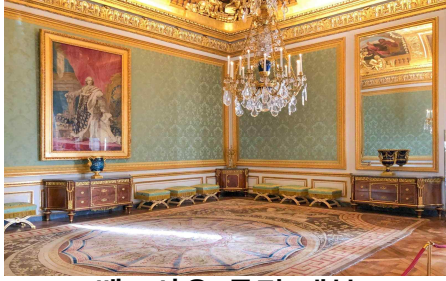
□ 청와대 아트 콤플렉스

▶ '프리미엄 근·현대 미술' 전시공간으로 구성

① (본관, 관저) 원형을 보존하여 관리하되,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구성

- 본관 1층 로비와 세종실(335m²), 충무실(355m²), 인왕실(216m²)은 전시공간 활용
 - * 본관 2층 집무실·회의실 등은 원형 유지
- 관저는 본채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 설치

※ 본관 내부 활용 관련 해외 참고 사례



베르사유 궁전 내부



피렌체 피티궁전 로열아파트먼트

② (영빈관) 고품격 미술품 특별 기획전시장으로 구성

-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m² 면적, 10m 층고의 볼륨 있는 공간으로 고품격 전시에 적합
- 소장품 기획전, 이진희 컬렉션, 국내외 유명 작가 등 최고 작품 유치 및 기획 전시(예: 그랑팔레 기획전)를 통해 ‘국민 품속 청와대의 국민 체감 업그레이드
- 현재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 기획 준비 중(가을/장소 미정)
 - 작품은 허백련, 장우성, 김기창, 허건, 서세옥, 배림, 박대성, 송규태 등 한국 화가들의 작품으로 구성하여 한국화 분야를 조명
 - “1948년 이승만 경무대 시절부터 최고의 미술품이 있었다”는 스토리텔링 기초작업도 병행 진행
 - 도록 및 스토리텔링 작업을 민간 전문가와 협의 중

※ 한국화 작품 예시



허백련 <벽추>, 1952년작



이상범 <산수>, 1958년작



김기창 <농악>, 1980년작 추정

③ (녹지원 등 야외) 최고의 조각공원 및 야외 특별전시 공간으로 활용 검토

- 야외공간 곳곳에 최고 작가 또는 젊은 건축가 조각작품 상설 전시
- 녹지원 중앙에 파빌리온 프로젝트 진행을 민간전문가와 협의

④ (춘추관) 시민소통공간으로 하면서 2층 브리핑실(450m²)은 민간에 대관하여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

- 전시기간에는 1-2층 계단 벽면의 백남준 작품 <비디오산조> 가동
- 8월 중순 장애예술인 미술 특별전시회 추진(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협의중)

※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'A+ Festival' 특별전시 개요

- (기간/장소) 8.15(미정)~9.3 / 춘추관 2층 특별전시장
- (작품) 장애예술인 작품 50점, 발달장애인 김현우(용산 대통령실 작품 작가), 정은혜(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작가) 등 참여 예정

* 미술 전시 외에도 계기별로 대정원에 국악, 클래식,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종합 공연예술 무대 기획·운영, 영빈관 1층에 고품격 클래식 실내악 콘서트 등 추진

□ 대통령 역사문화공간

- 본관+관저+구 본관 터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삶, 권력 심장부를 실감하는 상징공간으로 구성
- 역대 대통령 자녀·친인척, 대통령학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 구성
 - 청와대에서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과 본인들의 삶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여 국민 통합 효과 제고
 - 자문위원 구성(안);
 - 조혜자(이승만 대통령 며느리), 윤상구(윤보선 대통령 아들)
 - 박지만(박정희 대통령 아들, 박근혜 대통령 동생)
 - 노재현(노태우 대통령 아들, 옛 본관과 지금 본관 모두 살았음)
 - 김현철(김영삼 대통령 아들), 김홍업(김대중 대통령 아들) 등
- 구 본관('93년 YS 지시로 철거)의 작은 모형(미니어처) 제작 검토
 - 정부 수립부터 6.25, 산업화, 민주화의 고뇌를 함께한 대통령 문화의 흔적
 - 1980.12월 전두환 대통령이 현관을 남쪽으로 옮겼고, 현재는 '절병통(節瓶桶)'(현관 지붕 위에 있던 장식물)만 있음
 - * 구 본관은 1939년 준공, 조선총독 관저(9명 총독중 마지막 3명 기거) → 해방후 3년간 하지 미군 사령관 관저 → 1948년 초대 이승만의 경무대(집무실+관저)로 우리 역사에 편입 → 이승만·윤보선·박정희·최규하·전두환·노태우 전반기(1991.10. 본관 준공)까지 사용

□ 고품격 수목원

- 녹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원과 수목 관리
 - 740여년 최고령 주목, 170년 반송, 대통령 기념식수 24그루 등 180여종 5만여 그루와 꽃의 관리와 활용

□ 문화재 보존

- 침류각(서울시 문화재), 오운정(서울시 문화재), 석조여래좌상(보물 1977호), 칠궁, '천하제일복지' 암각 등 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스토리텔링 축적

② 우리 경제의 도약, K-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.

□ 현황

- K-콘텐츠산업 수출은 119억불('20년)로 가전제품(73억불), 디스플레이 패널(41억불)을 추월하여 대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
 - K-콘텐츠의 활약으로 '21 韓 글로벌 소프트파워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11위(英 브랜드파이낸스), 외국인의 81%가 한국 이미지 긍정 평가
 - * 국가이미지 영향 요인 ('21): 문화(33%) > 제품·브랜드(13%) > 경제수준(10%)
 - K-콘텐츠 경쟁력 입증에도 불구하고, 자금 부족으로 IP 해외유출 심화*
 - * 넷플릭스는 '오징어게임'에 250억원 투자, IP 이전으로 1조원 수익 예상(블룸버그)
- ⇒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 민간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뒷받침

□ 주요내용

① 영화, OTT 콘텐츠, K-팝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

- (영화)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(3천억원, '23~'25) 및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·제작비 세액공제 확대
- (OTT) 글로벌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드라마펀드('22, 400억원), 제작 인프라 조성*,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등 규제혁신
 - * 스튜디오 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구축('23),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('26)
- (K-팝) 신진 아티스트의 성공적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 지원('23~), 현지 쇼케이스 등 신진 K-팝 가수 해외진출 지원('23~)

②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기업 육성

- IP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IP 펀드, 물적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 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 신설* 등 5년간 4.8조원 공급('23~'27)

* '범죄도시2'는 가치평가를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초기 제작비 투자 유치로 1,200만 관객 돌파

- 콘텐츠기업 성장 및 펀드수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펀드 조성*

* (모태펀드 6종 패키지) ① 문화일반펀드, ② 콘텐츠 IP 펀드, ③ M&A 펀드, ④ 유니콘 (모험투자) 펀드, ⑤ 밸류(가치평가연계) 펀드, ⑥ 소외장르 펀드

③ 신기술 융합 한류를 메타버스로 확장

- K-메타월드(한류), 가상 박물관·미술관(문화유산), 한강공원 가상체험공간 (한국관광) 등 시공간 초월 한류 콘텐츠 소비 생태계 조성

④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 3년간 1만명 양성

- 산학연 협력 창의인재(원캠퍼스, 3,000명), 콘텐츠 기획·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인재(600명), 번역·수출 전문인력(500명) 양성
- 현장전문가의 예비창작자 교육인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(1,300명), 영화·게임·웹툰·음악·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(4,600명) 교육

⑤ 콘텐츠·미디어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

- OTT, 메타버스 등 새로운 콘텐츠-플랫폼 상생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·콘텐츠산업 협의체 구성 및 규제혁신 추진

참고

한류 주요 성과

- (콘텐츠산업 성장) 최근 한류는 전례없는 성과를 창출, 국제적 경쟁력 입증
 -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은 2조 3,157억 달러('20년), 미국이 세계시장의 36.5%(1위), 한국은 2.6%(7위) 점유(PwC 2021) * 2위 중국(14.9%), 3위 일본(8.4%)



<대중음악>

- BTS <다이너마이트>, <라이프 고즈 온>(이상 '20년), <마이 유니버스>, <버터>, <퍼미션 투 댄스>(이상 '21년) 등이 **빌보드 싱글차트 '핫 100' 1위**
- ※ <다이너마이트> 빌보드 싱글차트 1위 생산유발 약 1조 2,324억원, 부가가치유발 약 4,801억원 추정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

<영화>

- '헤어질 결심'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, '브로커' 남우주연상 수상
- '기생충',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,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



<드라마>

- 드라마 '오징어게임', '사랑의 불시착', '이태원클라쓰', '킹덤'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어 전 세계적 인기
- ※ '오징어게임'은 전 세계 1억 4,200만 가구가 시청, 94개국에서 1위 차지('21.10.13. 기준), 미에미상 최초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 지명, 14개 부문 노미네이트('22년)



<애니메이션>

- 핑크퐁 '베이비 샤크 댄스' 동영상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(70억회)
- ※ 한국 곡 최초로 미국 음반산업협회 최고 등급인 '다이아몬드' 인증(다운로드, 실시간 재생 수 등 합산 1천만 건 이상)



<웹툰>

-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 ' 스위트홈', 세계 13개국에서 1위 기록

- (수출 증대) 최근 5년간('16~'20년) 콘텐츠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8.7%로 전체산업 0.9%의 20.7배로 비약적으로 성장('20, 콘텐츠산업통계조사, 관세청)
 - 코로나19에도 '20년 수출은 119.2억 달러로 지속 성장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
콘텐츠 수출(천불)	6,008,063	8,814,442	9,615,036	10,189,026	11,924,300
국내 총수출(천불)	495,425,940	573,694,421	604,859,657	542,232,610	512,498,038

- * '21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는 24.5억달러,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흑자가 7.5억달러로 전년대비 4.3배 상승 및 역대 최대 흑자 기록('22.3월, 한국은행)

- (과급효과) 소비재 수출 촉진, 관광 활성화 등 연관산업 성장 견인
 -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.8억 달러 증가
 - 특히 비중화권에서 음악·방송·영화 등 비게임 분야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 5.27억 달러 증가('22년, 한국수출입은행)

③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
□ 현황

- 자유의 가치와 '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'는 원칙을 문화예술에 투영시켜,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,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,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 조성
- 영화, 드라마, K-팝 중심의 한류에서 클래식, 미술, 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까지 전세계의 K-컬처에 대한 관심 상승 및 위상 강화

□ 주요내용

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

- 단년 위주 지원에서 다년(3년 이상) 지원으로, 창작 안정성 확보와 대표 프로젝트 발굴·육성
-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2030 젊은 예술인 생애 첫 지원,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 대상 경력단절 이음지원('23~)
-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비율을 48.7%('21)에서 70% 이상('27)으로 확대하여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 조성

② K-컬처 원천으로서 기초예술 육성

- (미술) 작품 창작·전시, 작가 해외진출 등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, 세계 유명 아트페어 공동개최 지원(키아프X프리즈, '22~'26) 등
- (K-클래식) 한예종 영재원 인재양성 강화, 국립단체 연계 지휘자·연주자 아카데미 고도화
- (문학) 원어민 중심의 전문 번역 학위과정 설립(~'25), 현지 번역·출판 지원, 작가 교류 지원 활성화로 한국문학 세계화

③ 예술인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 구축

- 예술인-예술기업 협업을 통해 예술작품 창·제작-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'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' 구축(~'27, 17개소)
- 장르별 특성을 잘 살려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전용 공연장('23~, 클래식, 무용, 뮤지컬 등,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문화공간 조성(서울 서계동, ~'26)
- 예술대학 현장 프로젝트 지원, 예술-기술융합 연구('23~)로 예술적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

④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.

□ 현황

- 자유 시민의 선결 조건은 공정한 문화의 접근기회 보장.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지원
 - 특히, 장애인들의 문화예술, 체육,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이 좋아짐

□ 주요내용

① 장애인 문화·예술을 꽃 피우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

- 전국 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 및 공연장 등 장애인 창작자·관람자의 접근성 실태조사 추진('22, 신규),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 개선
-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('22.下)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 제시, 장애인 표준공연장('22)·전시장 조성('23~)
- 한국어-점자, 한국어-수어 간 자동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의 원천자료인 병렬말뭉치 구축 추진(연간 각 1백만 어절)

② 장애인이 쉽게 여행하고,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 확대

- 장애인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해, 개별 관광지 편의에서 나아가 관광지 간 연계 강화, 투어케어(여행돌봄) 인력 양성 * 장애친화형 관광도시 16개 조성, '23~'27
- 장애/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기회 증진을 위한 전국 어울림생활 체육대회(9월), 통합체육교실 운영 등

③ '이야기할머니'가 창작자가 되는 환경 조성

-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'이야기할머니, 실버마이크(어르신 공연팀) 등 어르신들의 경험을 문화 생산 활동으로 연결
- 어르신 문화동호회 지원, 생활체육교실(520개, 15만명), 시니어 관광 활성화 등 문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

④ 꿈의 댄스팀 등 아동·청소년의 역동적인 활동 기회 확대

- 꿈의 오케스트라(51개)·댄스팀(무용단, 16개, '22~),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등
- 문화 바우처(통합문화이용권, 263만명)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·축제 등 맞춤형 문화서비스 강화('23~)

⑤ 지역균형시대, 문화가 열겠습니다.

□ 현황

-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자산이 풍부하나, 지역 인구감소 극복,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은 미흡
- 문화·체육·관광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즐겨찾고 싶은 지역의 매력발굴을 통해 함께 번영

□ 주요내용

① 고유 문화자원으로 지역 브랜드화

-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·관광·산업·도시계획을 망라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명품 문화도시 조성(~'23, 30개)
- 미술, 공연, 스포츠 등 특화된 콘텐츠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문화·관광·체육거점 조성*
- * (문화거점) 舊 경북·충남도청 부지 활용 뮤지컬 콤플렉스(대구)·국립미술품보존센터(대전)
(관광거점) 영·호남 '문화 휴양 관광지대'(23~'32), 강원·경북 '글로벌 관광 루트'(25~'34)
(체육거점)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(예, 대구 육상), 노후 종합운동장 랜드마크화(~'27, 10개소)

② 자주 가고,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

- 체류 기간 증대를 위해 '워케이션'* 확산, '지역에 살아보기'형 관광, 숙박을 유도하는 '야간관광' 육성, '반려동물 동반 여행' 등 활성화
- * 일+휴가(work+vacation) 새 여행형태로, 국가 지역별 유치경쟁 심화, 기업 도입 확산 추세
- 해외→국내로 여행수요 전환 촉진하는 (가칭) '국민여행적금'* 도입 추진
- * 적금 만기 시 정부·지자체·기업이 국내여행 포인트, 할인 등 혜택 제공
- 방한관광객의 지역관광 확대를 위해 방한관광 여건*을 조속히 정상화하고, '한국방문의해', 지방공항 입국 환영캠페인 실시
- * 무비자 입국 복원(법무부·외교부), 국제선 증편(국토부) 등 협업('22)

③ 관광두레, 지역 청년의 新동력

- 지역 주민·청년 주도 '관광두레'를 운영, 지역 자생 문화·관광 콘텐츠 개발* 및 지역 정주 청년 유입
- * 정선에서만 채광되는 광물질(운기석) 이용 공예상품, 평창지역 자연주의 여행 프로그램 운영
- 지역문화기획자 양성('22~'27)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(함양) 등 지역 문화 여건 맞춤형 문화 취약지역 활력제고(~'27, 연 10개)

Ⅲ. 규제혁신 방안

○ (우선 추진) OTT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 등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해소

- (신산업 성장 지원) ①OTT 사업자가 직접 영화 등 영상물에 대해 등급 분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* 도입(~22.12월), ②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(~22.12월)
* (현행)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받아야 함(처리기한 약 10일 소요)
- (관광산업 코로나 회복) ③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(외국인 참석자 수), 집적시설 기준(공연장 500석→300석 이상) 개선(~22.7월), ④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(3층→4층, ~22.8월)
- (현장으로 해소) ⑤예술 활동 증명절차 간소화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(~22.12월)

○ (협업 추진)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발굴·혁신

- (기업투자 촉진) ①(기재부)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(OTT콘텐츠, 교양 장르), ②(법무부)콘도 재건축을 위한 사전 동의율 기준 하향(80%→60%대), ③(국토부)관광단지 내 대중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 완화**

* (현행)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

→ (개선) 대기업 10%, 중견기업 15%, 중소기업 20%

** (현행) 관광단지 내 다른 민간사업과 달리, 골프장의 경우 토지수용권 불허

→ (개선)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, 타 민간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수용 허용 (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취득시 토지수용권 부여)

- (근로여건 개선) ④(고용부)문화예술·콘텐츠업계 특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합리적 운영